

[논 문]

프랑스 지리학의 만주인식의 변화
— “아날드제오그래피” 논문에 등장한 ‘만주’ —

임 동 근*

┌ 차 례 ─┐

- I. 서론
- II. ‘아날드제오그래피’ 창간 이전의 ‘만주’
- III. ‘아날드제오그래피’의 출범과 만주 소식의 전달
- IV. 20세기 초의 ‘만주’
- V.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프랑스 지리학과와 출발인 ‘아날드제오그래피’ 저널에 등장한 ‘만주’ 지역 연구를 통해 프랑스 지리학에서 ‘만주’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달학파’라 불리는 19세기 말의 프랑스 지리학과와 의 형성은 식민지 팽창과 국가간 전쟁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리학의 기본이 되는 지도제작, 지역분석 등의 방법론을 정착시켰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프랑스 지리학과와 ‘만주’ 관련 글들을 본 결과, 이들의 방법론은 20세기 초까지 만주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지리학저널의 지리학지식 생산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몇몇 저명 학자들의 경험에 의존한 기술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지리학자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전달되는 사건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며 이를 평가하는 지식 축적단계에 있었고, 유럽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지도 제작, 지질조사, 식생조사 등을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새로 등장하는 국가기관(수자원, 산림 및 지하자원 담당)과 군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 BK21플러스 사업단).

부대의 지도제작술의 공간적 범위 확장으로 학계에서 이를 수행할 필요가 점차 줄어들었다. ‘만주’에 대한 프랑스 지리학의 지식 또한 이후 국가경제 분석 차원에서 혹은 지역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1930년대부터는 지리학의 연구 대상이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배치된 인구로 확장하게 된다.

주제어 : 만주, 프랑스 지리학, 아날드제오그래피

I. 서론

역사학자였던 들라블라쉬(Paul Vidal de La Blache, 1845-1918)는 1891년 ‘아날드제오그래피’(Annales de géographie, 지리학연표)를 창간한다. 역사학에서 독립한 국가지리학의 출발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지리학자는 들라블라쉬보다 15살 연상이었던, 1850년대 독일의 리터(Carl Ritter)에게 수학한 르클뤼(Élisée Reclus, 1830-1905)였다. 그는 1870년대까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에 대한 지리학서를 출간했고, 1875년부터 여러 권의 ‘신보편지리학’(Nouvelle Géographie universelle)을 발표하고 있었다. ‘아날드제오그래피’를 창간한 1891년 이미 ‘신보편지리학 제 17권 동인도편’을 출간했으며, 먼저 집필한 ‘제16권 미국편’을 완성했다. 그는 1893년까지 총 19권의 ‘신보편지리학’을 집필하며, 당시 유럽을 대표하는 지리학자였다. 하지만 들라블라쉬는 19세기 말 지리학의 출발이라 불리는 ‘아날드제오그래피’를 출간할 무렵 르클뤼를 찾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와 적대적이었다.

르클뤼는 신학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당시의 사회주의 집단의 영향으로 1848년 생시몽, 콩트, 푸리에, 라므네 등의 사회주의를 접했다. 1851년 신학을 포기하고 베를린으로 간 후 독일지리학자 리터의 수업을 듣는다. 여기서 그는 “무정부주의, 질서의 가장 고귀한 표현” 문구가 등장하는 그의 첫 저작 ‘세계 자유의 발전’을 출간한다. 이후 프랑스로 왔지만 곧 영국으로 추방

되고 망명생활을 하며 수많은 지리학서를 썼다.¹⁾ 반면 들라블라쉬의 지리학적 토대는 1870년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실패 이후 국가의 지리학교육 착수와 함께 진행된 작업으로, ‘아날드제오그라피’는 ‘프랑스지리학과’의 출발로 여겨졌다. 저널이 만들어지고 애국주의 엘리트집단인 고등사범학교(ENS) 출신들이 지리학에 합류하였고, 10년 후인 1903년에는 ‘프랑스 지리학표’(Tableau de la géographie de la France)를 발표한다. 이는 국가 지리부도의 시초에 해당한다. 이후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망라하는 지리학 교육과정을 만들며 프랑스 지리학의 창시자로 대우받는다.

“땅의 기술”을 뜻하는 지리학은 탐험, 관찰, 묘사 등의 ‘다른 곳’에 대한 설명이지만, 르클뤼에게는 ‘사람과 땅’에 대한 문제였고, 들라블라쉬에게는 자연과 지형의 문제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고, 식민지 지리학자였던 마르셀 뒤부아(Marcel Duboi)의 경우 ‘인구(국가)와 자원’의 문제였다.²⁾ 들라블라쉬가 창간한 ‘아날드제오그라피’는 1. 일반지리학³⁾, 2. 지역지리학, 3. 노트와 소식, 4. 지리학사건으로 구성되었고, 1930년 ‘노트와 소식’이 ‘노트와 고찰’로 바뀌고, 1940년 일반 및 지역지리학의 구분이 사라지지만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즉, 지리학의 지식은 일반지리학이라 불리는 지리학 법칙의 문제와 지역지리학이라 부르는 지역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그 지식을 공급해주는 탐험과 군부대 및 국가집단의 임무(노트와 소식), 이 소식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지리학적 사건’⁴⁾으로 구성된다.

-
- 1) 르클뤼의 생각과 작업은 그의 수많은 여행과 무정부주의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반대로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20세기 동안 금지 혹은 무시되었다(Giblin, 2015. 12.).
 - 2) 마르셀 뒤부아는 1905년 들라블라쉬의 자연지리 편향을 비판하며 ‘아날드제오그라피’에서 탈퇴하지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특히 만주 관련 아시아의 글들을 보면 대부분 마르셀 뒤부아의 정치지리와 경제지리에 속하는 내용이었다.
 - 3) 아날드제오그라피에서 기후학, 해양학 등 오늘날 다른 학문 분과가 있는 주제나 혹은 식량, 천연자원, 인구 등 전세계를 범위로 논하는 주제, 즉 일종의 계통지리학은 ‘일반지리학’의 범주로 분류된다.
 - 4) ‘지리학적 사건’은 주로 전세계의 신문 혹은 저널을 통해 알게 된 사건들 중 지리학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 논문은 오늘날 ‘지리학’이라 불리는 지식이 탄생한 바로 이 시기 ‘아날 드제오그라피’에서 ‘만주가 인식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날드제오그라피’ 창간 이전의 ‘만주’

르클뤼는 1881년 19권의 ‘신보편지리학’중 제6권 러시아 아시아에서 만주를 다룬다. 45페이지에 달하는 7장 ‘스타노보이, 아무르 강 유역, 러시아 만주에서 러시아 정부의 광활한 영토에서 부재하는 정치권력과 땅과 하나가 되어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⁵⁾ 특히 그에게 ‘만주’는 자연이 지배적이고 ‘국민’이 부재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시베리아의 자연지역, 아무르 강 유역과 인근 해안지역, 언젠가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일본해와 맞닿고, 남쪽으로 몽고(Mongolie)와 조선(Corée) 사이를 지나며, 중국에 속한, 정확하게는 옛적 이방인들(barbares)을 막고자 건설된 중원의 ‘대장성’(grande muraille) 인근지역에 속한 아무르 강 계곡들, 남쪽의 지천들, 러시아 만주(Mantchourie russe)는 극동 사람들과 마주하며 1억 인구를 가진 국가의 군사적 영향력을 드러낸다. 이곳이 광활한 러시아에서 거의 일년 내내 대양으로 자유롭게 열려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 러시아가 정치적 지위를 얻기에 앞서, 러시아의 만주가 필요한 것은 바로, 문명화되고 농업, 상업, 공업으로 풍요로운 사람(population)이다. 아무르 강과 해안 지역은 러시아 애국자들이 약속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하고, 거리는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블라디보스톡과 크론슈타트(Kronstadt)를 연결하는 끈은 현실이라기보다는 허상에 가깝다. ... 아시아에서 차르는 자기 제국의 틀만 갖고 있을 뿐이다.” (Reclus, 1881 : 810-811)

르클뤼는 1882년 제7권 동아시아 편에서 중국에서 바라본 만주를 보여주

5) 르클뤼는 자연지리가 인간이 정복하고 바꾸어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는 결합물로서의 ‘지리’를 주장했다.

는 데, 비록 중국 쪽의 만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이 오고 갔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만주(Mandchourie chinoise)는 러시아 정부가 정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경계를 갖고 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아무르 강과 여기로 흐르는 우수리 강, 남동쪽으로 산맥, 사막, 그리고 조선과 만주를 나누는 목책들이 있다. 남쪽으로는 황해와 맞닿은 리아오통(Liaotoung, 요동) 지역이 있다. 반면 서쪽으로는 몽고의 옆으로 경계가 희미한데, 어떤 자연적인 경계도 없다. 다싱안링(Grand Khingan)의 서쪽으로 ‘초지’(Terre des Herbes)의 북동쪽에 만주에 속하고, 황하(Chara mouren) 북쪽 모두의 숲과 옥토 지역이 내몽고가 된다. 옛날 ‘버드나무 울타리’(palissades de saules)가 몽고와 남만주를 갈랐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경계는 사라졌다. 지역사람들은 강회제 시대 심었던 나무들이었다고 말하는 여기저기의 산지를 보여주지만, 무크당(Moukden, 선양)과 지린(Girin) 만주 지역에서 옛 국경의 양쪽을 보여주는 작은 숲들에서 [두 지역 경계의] 작은 흔적도 찾기 힘들다. 이곳을 언제나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청, 일본, 조선이 예전 앞 다뤄 건설했다던 목책과 말뚝들은 전략적인 의미가 전혀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계들은 지역을 둘러싼 일종의 마법의 원이었고 정령들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Reclus, 1882 : 222-223)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에서 당시 프랑스 지리학에서 ‘만주’를 인식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만주는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거쳐 팽창하는 러시아의 북쪽 만주와 청나라의 발원지인 남쪽 만주로 구분되었다. 이는 프랑스 일반이라기 보다는 지리학, 특히 독일 지리학의 영향을 받은 학계의 구분이었다. 당시 1880년대 말부터 앙드리앙 로네(Andrien Launay)는 카톨릭의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했었고, 이를 보여주는 ‘만주선교’(La Mission de Mandchourie)를 1905년 출간한다. 당시 선교에 사용했던 지도는 1887~1889년 제작된 것으로 당시 만주의 상황을 보여준다(그림1). 이 지도를 보면 당시 만주는 시베리아 동쪽과 내몽고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동쪽의 아무르 강과 서쪽의 요하 유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로네의 '만주선교' 표지(1905)

ÉTUDE
 SUR LA
MANDCHOURIE

PAR
HENRY DE ROSNY
 Maître de l'École des Hautes-Études.

PARIS
 J. MAISONNEUVE, ÉDITEUR,
 LIBRAIRE DE LA SOCIÉTÉ SINICO-JAPONAISE
 25, Quai Voltaire, 25
 1891.



[그림 3] 로즈니의 '만주연구'(1891)

또한 1890-1891년 출간된 앙리 드로즈니(Henry de Rosny)의 '만주연구'(Etude sur la Mandchourie)는 당시 만주어 표기와 발음까지 채집하며 만주의 지리를 조사했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만주의 범위 또한 중국과 러시아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르클뤼가 무정부주의자였음에도 국가의 출현과 함께 했던 19세기 지리학의 출현이 가진 인식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르클뤼의 '신보편지리학'의 지역구분은 이후 대륙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각 지역의 지리학은 땅 그 자체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875년 첫 권은 남부유럽이었고, 1876년 두 번째 권은 프랑스, 1877년 세 번째 권은 중앙유럽이었다. 각 책의 기술 방식은 국가별로 해당 지역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실제 그 지역을 선교하거나 언어 및 역사에서 출발해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들과 달리, 지리학은 처음부터 국가의 영토를 나누고 이를 토대로 지역을 탐험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았고, 후에 일본의 침투와 조선인이 모여 살았던 만주의 경우 지리학의 방식으로 통합된 상을 그리지 못한 채, 르클뤼의 책에서 보듯이 때

론 등과 서로, 때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다. 1891년 출범한 ‘아날드제오그라피’ 또한 이런 인식의 틀에서 진행된다.

Ⅲ. ‘아날드제오그라피’의 출범과 만주 소식의 전달

‘아날드제오그라피’(지리학연표)는 역사학자였던 들라블라쉬가 지리학을 역사학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 학문으로 정초한 출발이었다. 또한 이는 당시 고등사범학교(ENS)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랑스 지리학파의 출발이었고, 이후 ‘비달학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국가의 제도에 깊게 관여하게 된다. ‘아날드제오그라피’ 저널의 출간당시인 19세기 말, 아시아, 특히 만주 분야에서 중요한 점은 지리학자들의 논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보듯이 1890년대 만주관련 글은 당시의 소식을 전하는 1~2페이지의 ‘지리학적 사건’[C]이 대부분이며, 논문에 해당하는 글은 지리학자가 아닌 당대의 아시아 지식을 보유한 다른 분야 사람들이었다.

<표 1> 1890년대 만주관련 ‘아날드제오그라피’ 논문 및 기사

1892	[N] Camena d’A.P. 시베리아 철도 (n°1, 111-112) [C] Guillot, E. 시베리아 철도 (n°1, 114-115) [A] Raveneau L. 우리가 아는 아시아 (n°2, 160-176) [C] Froidevaux H. 시베리아 철도 (n°5, 502-503) [C] Froidevaux H. 시베리아 동부 탐험 (n°5, 503)
1893	[C] Froidevaux H. 시베리아 철도의 진척상황 (n°6, 261-262) [C] Froidevaux H. 인찬(In-Chan)과 킵간(Khingan)지역의 푸치아타(Poutiata) 대령(n°6, 263) [C] Froidevaux H. 시베리아 탐험 (n°7, 409)
1894	[C] Froidevaux H. 시베리아 탐험 (n°9, 115-116)
1895	[N] Lémosof P. 러시아인의 지리학 작업 (n°15, 225-232) [C] Zimmermann M. 시베리아 철도 (n°16, 387-388) [C] Zimmermann M. 청일 평화조약(n°17, 517-518)

1896	[A] Chavannes É. 청일전쟁의 결과 (n°20, 216-233) [C] Zimmermann M. 청 내 유럽열강의 상업 경쟁 (n°21, 348-350)
1897	[C] Zimmermann M. 아시아에서 러시아 자산의 발전. 상업정책과 대공사 (n°26, 187-189) [C] Zimmermann M. 고고학 탐험 프로젝트 (n°28, 375) [C] Zimmermann M. 시베리아 철도가 만든 지리적 변화 (n°28, 377) [A] Woeikof A. I. 미대륙 북부와 비교한 시베리아 동부의 기후 (n°30, 385-407)
1898	[A] Woeikof A. I. 미대륙 북부와 비교한 시베리아 동부의 기후(후편) (n°31, 1-13) [C] Zimmermann M. 시베리아 동부관련 러시아의 과학연구 (n°32, 186-188) [C] Zimmermann Me. 청의 상업 분점 (n°33, 283-285)
1899	[C] Zimmermann M. 시베리아 철도 공사 상태(n°38, 184-185) [A] Lévy S. 시베리아를 통해 나가사키에서 모스크바까지(n°40, 330-349) [C] Zimmermann M. 극동 영리 협약 (n°40, 379-380)

[A]: 논문, [N] : 노트 및 소식, [C]: 지리학적 사건

그 출발이 되는 라브노(Louis Raveneau)의 글에서 지리학계가 기존 프랑스 선교사들과 탐험가들의 지식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세기부터 선교사들이 청나라를 빈번히 오고갔고 19세기에도 일본보다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더 컸다고 말하는 데느리(Etienne Dennery)의 글을 생각할 때 매우 의아한 지점이다.⁶⁾

라브노의 논문 ‘우리가 아는 아시아’(1892)는 “15년 전부터 다분히 소수의 탐험가, 자본가들의 관심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반면, 아시아엔 관심이 없었다”고 시작한다. 1875년까지 프랑스는 아시아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알고 있었지만 1890년대까지 많은 지식들이 쌓임에 따라 그는 이를 정리하고자 했다. 라브노는 (1) 러시아 아시아, (2) 중앙아시아, (3) 중국과 일본, (4) 인도차이나와 인도, (5) 서아시아로 구분하여 당시의 지식들을 살폈다. 여기서도 르클뤼의 작업처럼 만주 지역은 여기서 러시아 아시아와 중국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러시아 아시아에서 다룬다.

6) Dennery Etienne, “A French View of the Situation in the Far East”, International Affairs(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31-1939), vol. 17, no. 4, 1938, p. 530.

“베누이코프(Veinoukov), 체카노브스키(Tchekanovsky), 폴리아코프(Poliakov), 야드리제프(Jadrinzev)의 좋은 저작들이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강과 호수의 유역 연구, 러시아의 강점인 식물과 동물의 지리학연구, 광물을 발견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질학 연구를 발전시켰다.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 되는 연구는 동쪽지역으로, 최근 청으로부터 양도받은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유역이다. 프리에발스키(Prijevsky)가 1869년 이곳을 탐험했고, 1888년 지질학자 이바노프(Ivanov)가 우수리 지역과 잘 알려진 사할린 섬을 새로 조사했다. 프랑수아인 조셉 마르탕(Joseph Martin)이 이아블로노이(Iablonoi) 산맥을 넘어 잘 알려진 사할린 섬으로 갔고(1882-1886), 공학자와 지리학자로서의 두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지리학 러시아 황실 협회’(Société impériale russe de Géographie)가 만들고 지원하는 강력한 지식인 단체들인 ‘시베리아 동부국’(Omsk소재), ‘동시베리아 서부국’(Irkoutsk소재)과 블라디보스톡에 세워진 ‘아무르 회사’(Société de l’Amour)가 지리학 연구를 추진하고 결과물들을 모은다. … 시베리아 철도가 구간별로, 신속하고 큰 재원 없이 완공될 것인데, 이는 기존 육로와 강안 도로를 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블라디보스톡과 키아차(Kiachta), 태평양과 청이 페테스부르크와 가까워지고, 아시아의 경제지리는 크게 달라진다.” (Raveneau, 1892 : 161-162)

“다비드 주교, 피아세츠키(Piassetsky), 질(W.Gill)의 여행, 보다 최근(1883)에는 메일리-샬롱(Mailly-Chalon), 영국계 인도인 제임스의 만주 여행이 있었다. … (중국) 지형도(topographie) 작업결과를 수집해 정리한 것은 러시아인 마투소프스키(Matousovsky)이다(1888). … 그의 책은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한탄스러운 지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요약하면, 몇몇 부분에서 우리는 중국을 많이 알지만, 수많은 부분에서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이다.” (Raveneau, 1892 : 167-168)

‘아날드제오그라피’ 발간 첫 해이자, 아시아 관련 첫 논문이기도 한 라브노의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라브노는 저널 첫 출발부터 참여했던 학자였고, 그의 주 작업은 당시 프랑스 지리학계에서 접할 수 있는 전세계 책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1865년생인 라브노는 고등사범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다(1885-1888). 이후 독일로 건너가 1년을 보내며, 그곳의 학

자들과 교류했다. 1889-1892까지 고등사범학교 감독관으로 재직했고, 여기서 자신의 옛 선생인 비달들라블라쉬를 만난다.⁷⁾ 이때부터 지리학 작업을 하고, 특히 ‘아날드제오그라피’의 창간 후 저널의 부록으로, 전세계 지리학 신간을 소개하는 ‘지리학 참고문헌’을 1892년부터 1914년까지 집필한다.⁸⁾ 라브노의 ‘우리가 아는 아시아’는 주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서구 자료들로 구성된 이 참고문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837. Num. 1. 2 / 1796 F. 1 p. 248 F. C



[그림 4] 국가별 아시아의 탐험 지도(1892)⁹⁾

1892년부터 1931년까지 발간한 ‘지리학 참고문헌’에서 만주는 1897년 이전에는 주로 러시아 아시아 편에서 다루고, 1898년부터 1903년까지는 ‘러시

7) Gallois Lucien. Louis Raveneau (1865-1937). In: Annales de Géographie, t. 46, n°264, 1937, pp. 640-642.

8) 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라브노의 후임으로 엘리시오 콜랭(Elicio Colin)이 참고문헌 출간을 이어갔다.

9) Annales de Géographie, t. 1, n°2.

아 아시아편이 ‘러시아 아시아 - 만주’ 항목으로 바뀐다. 1904년부터 다시 ‘러시아 아시아’ 항목으로 축소되고 만주는 한국과 함께 ‘만주-코레(Corée)’편으로 다뤄진다. 이후 1920년까지 만주의 참고문헌을 다루는 이 틀은 유지되었다.¹⁰⁾ 따라서 19세기 프랑스의 만주 인식은 러시아의 만주였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지배가 공고해지는 한국과 만주가 되었다.

19세기 러시아로부터 만주를 소유하는 방식은 당시의 사건들을 지리학적으로 검토하는 ‘지리학적 사건’[C]에서도 드러난다. ‘지리학적 사건’은 주로 한명의 학자가 전세계의 사건들을 정리하는 글이었다. ‘아날드제오그라피’ 창간 초기 몇년은 프랑스 식민지를 연구한 프르와드보¹¹⁾가 맡았고, 1895년부터 1910년대 중반까지 근 20년 동안 짐머만(Maurice Zimmerman, 1869- 1950)¹²⁾이 정리했다. ‘지리학적 사건’은 라브노가 정리한 ‘참고문헌’과 함께 당대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주목했던 사건과 지식의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식틀이다. 1890년대 ‘지리학적 사건’ 중 만주와 관련된 소식을 보면 대부분이 시베리아 철도이며, 상업(교역) 상황과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다.¹³⁾

10) 1차세계대전 발발로 1913-1914년은 통합본으로 나오며, 전쟁 후인 1919년 지난 5년간의 참고문헌을 정리한 1915-1919년편이 발간된다. 따라서 라브노의 후임인 콜랭이 참고문헌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기 전까지 유지된 것이다. 1920년 이후 만주국 출범 이전까지 만주는 아시아의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11) 프르와드보(Henri Froidevaux, 1863-1954)는 1895년까지 방돔 고등학교 교수였으며 주로 해외의 프랑스 식민지를 연구했다.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식민지국(Office colonial)에 있었고 ‘파리 카톨릭 연구소’에서 근대역사를 가르쳤다. 프랑스 인도 (1668년부터 1954년까지 인도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의 통령(Gouverneur)이자 콜레주드프랑스의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1898년 설립된 ‘프랑스 애국단(Ligue de la patrie française) 소속이기도 했으며 1913년 기사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1894년까지 ‘아날드제오그라피’에 참여하고 이후 ‘아날드제오그라피’에 글을 안 쓴 것은 1895년 프랑스지리학계에서 벌어진 애국논쟁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895년 식민지 확장을 주장하고 지리학은 국가의 식민지배에 도움을 주는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셀 뒤부아(Marcel Dubois, 1856-1916)는 저널의 주창자였던 비달들라블라쉬와 갈라선다. 그는 들라블라쉬의 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지형학에 빠져있다고 비판했고, 뒤부아는 식민지 지리학을 위한 경제 지리를 주장했다. 뒤부아가 ‘아날드제오그라피’ 그룹에서 나간뒤 들라블라쉬는 갈르와(Lucien Gallois)를 영입한다. Paul Claval, p. 80.

12) 짐머만은 고등사범학교(1891-1894)를 수석 졸업하고 리옹 대학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편을 잡는다.

우선 시베리아 철도는 1891년 10월 제1호부터 '지리학 사건'에 등장하여, 1892년까지 네편의 소식이 전달된다.

첫 번째 1호에 실은 카메나(Camena d'Almeida P.)가 정리한 '시베리아 철도'는 카스피아 철도의 성공이 시베리아 철도 건설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군사적인 목적이었다. 당시 국가가 연해주로 보낸 러시아 식민개척자들은 기상이 안 좋을 경우 오데사(Odessa)에 머물렀고, 오데사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동안 바다 위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다.

“만일 청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매우 빠르게 아주 광활하고 국경에 널리 흩어진 군대를 신속히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Camera, 1891 : 112)

하지만 시베리아 철도는 비싸고, 활용성이 떨어지며, 주변에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타산성이 떨어지는 일이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철도 건설이 보다 시급했다.

“그 결과 최대한 경제적으로 진행해야 했고, 연속적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임시로 구간을 나누어 건설해야 했다. … 첫번째 구간(시베리아 중앙)은 오비(Ob)에서 바이칼 호수까지 톰스크(Tomsk), 아친스크(Atchinsk), 니네-우딘스크(Nijné-Oudinsk), 이르쿠츠크(Irkoutsk)를 거쳐 가고(1,600km), 두번째 구간(바이칼 횡단)은 우다(Ouda)에서 실카(Chilka)까지 간 후 스트레튼스크(Stretensk)까지 이어진다(1,000km). 세번째 구간(우수리)은 우수리 계곡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를 연결한다(400km). … ” (Camera, 1891 : 112)

1891년 10월의 기사인 카메나의 글은 1891년 설립된 시베리아 철도 위원회 초기부터 공구를 나눠 진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시베리아 철도 관련 두번째 기이요(Guillot E.)의 글은 러시아 황태자가 인도차이나, 중국, 일본을 방문한 뒤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

13) '지리학적 사건'이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다른 대륙과, 만주지역 이외의 아시아 지역을 소개할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을 진행했다고 밝힌다. 이 구간 구분은 앞의 카메나와 다르다.

“이 노선의 첫번째 구간은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의 그라프스카이아(Grafskaia) 사이에서 블라고비첸스크(Blagowietchensk)까지 간다. 이후 치타(Tchita), 이르쿠츠크, 톱스크를 거쳐 몽고 국경 근처까지 가며, 노선은 러시아 철도와 있는 우랄 산맥 횡단선과 만날 것이다. 시베리아 철도는 약 8000km에 달하고 책임자 아네코프 장군은 4년 내에 끝날 것이라 말했다.” (Guillout, 1892 : 114)

곧 이어 1892년 프르와드보는 지금까지 유일했던 수운으로 가는 길이 시베리아 철도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1893년의 글에서 사마라(Samara)에서 첼리아빈스크(Tchéliabinsk) 구간이 1892년 11월 개통되었고, 우수리 구간의 공사는 1894-95년에 끝날 것이라 전한다. 또한 우수리와 태평양 사이의 구간을 이바노프(Ivanoff) 대령이 1892년 지질학 조사를 했고, 블라디보스톡 근처의 은, 석회, 석탄 등의 광물의 흔적을 찾았다고 소개한다.

1895년 이전 만주는 시베리아 철도 소식을 알리는 ‘지리학적 사건’으로 러시아의 활동에 등장한다. 반면 1895년 청일전쟁으로 중국 쪽에서 만주를 언급한 논문, ‘청일전쟁의 결과’(1896)가 실린다. 이 논문은 지리학자가 쓰지 않았다. 이 글을 쓴 샤반느(Edouard Chavannes, 1865-1918)는 당시 가장 주목받는 동아시아 연구자였다. 샤반느는 사마천의 ‘사기’를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당시 저명한 아시아학자였으며, 프랑스의 중국학을 정초한 사람이었다.¹⁴⁾ 그

14) 현재 콜레쥐드프랑스의 ‘아시아 협회’ 도서관에 샤반느 서고가 있다. ‘아시아협회(Société Asiatique)’는 1821년 영국의 ‘왕립아시아협회(Royal Asiatic Society)’를 모델로 1822년 파리에 서 설립되었다. ‘아시아협회’는 19세기~20세기 초반까지 프랑스의 아시아학의 중심이었으며, 이곳에는 샤반느뿐만 아니라 마스페로(Henri Maspéro, 1883-1945), 드미에빌(Paul Demiéville, 1894-1979), 필리오자(Jean Filliozat, 1906-1982)의 서고와 중앙아시아 자료인 헤밀턴(James Hamilton, 1923-2003)과 바쟁(Louis Bazin, 1920-2011), 인도 관련 푸셰(Alfred Foucher, 1865-1952)와 세나르(Emile Sénart, 1847-1928), 티벳 관련 바코(Jacques Bacot, 1877-1965)의 자료들이 있다.

는 고등사범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였고(1885-1888) 여기서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페로(Georges Perrot, 1832-1914)를 선생으로 만났다. 중국철학, 역사, 문학 등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다음해인 1889년 프랑스의 연구팀으로 중국에 파견을 간다.¹⁵⁾ 1893년 콜레주드프랑스의 중국어 교수로 임명되어 프랑스로 귀국한다.

샤반느의 ‘청일전쟁의 결과’는 귀국한 뒤 3년 후인 1896년의 글이다. 당시 현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학자였던 그는 청일전쟁의 발발과 이후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만주와 관련해선 주로 동아시아에서 요동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살핀다.

“일본에게 리아오동(Leao-tong)의 획득은 세가지 중요함이 있었다. 첫째, 이 지역이 산악지형이며 척박하다 할지라도 상업적인 가치가 있었고, 이는 리아오(Leao, 라오허)의 유럽인들에게 뉴-초앙(Nieou-tchoang)이라 알려진 잉컨(Yng-k'eon)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이름의 중국마을은 항구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져 있다.) 이 항구는 1861년부터 외국인에 개방되었고, 콩, 인삼, 생사, 모피등을 수출했다. 1894년 항구 관세 통제는 관세로 수입으로 7,293,581 타엘(taël, 냥)을 수출로 9,658,969타엘을 부과했다. 뉴초앙을 얻음으로서 일본인은 만주 상업 행위의 큰 부분을 가져가는 특권을 얻고자 했을 것이다. 두번째로 리아오동은 일본인에게 조선 사업의 기지가 될 것이었다. 조선의 남동쪽은 일본의 대마도로 붙어있고 리아오동에 있는 일본인 군대는 조선의 북동쪽에서 감시를 하게 되어, 조선을 며칠 안에 둘러쌀 수 있는 두 지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아오동 남쪽 끝, 중국어로 루초엔커(Lu-choen-k'cou)로 부르는 아더항(Port Arthur)이 있는 섬이다. 이 유명한 군사항은 1887년에서 1890년 프랑스 팽제쇼세(Ponts et Chaussées) 공학자들이 건설한 항구로, 시작부터 수치스럽게 반환되지 않았다면 중국인 저항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일본인 손에 들어간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일차적으로 중국인들이 자신의 해안을 방어하고자 하는 주된 노력을 마비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웨이-하이-웨이(Wei-hai-wei)의 맞은편에 있는 아더항은

15) 그는 1889년 중국에서 ‘시대’(Temps)지에 7월, 9월, 11월호에 현지 소식을 전한다.

산동(Chan-dong) 전쟁의 주요 항구로 바다로 100km 안에 있다. 이 두 지점은 페-체-리(Pet-che-li)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다. ... 실제로 리아오동이 일본이 되었다면 한국은 결정적으로 도쿄의 명령권에 종속될 것이었고, 중국은 저항의 첫번째 시도부터 조여 오는 철손으로 숨 막혔을 것이다.” (Chavannes, 1896 : 218-219)

요동의 정치적 중요성을 지적하는 샤반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런 정치적인 결정으로 일본은 대만 (Formose)와 페스카도레(Pescadores, 팽후)만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의 여파가 일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주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샤반느는 개항과 상업행위의 자유화가 중국 내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럽열강 등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의 황제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언급한다.

“이와 유사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시간은 촉박하고, 신속하고 급진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나라의 마지막을 알리는 조종이 곧 울려 퍼질지 걱정이다.”(Chavannes, 1896 : 233)

이 글을 쓴 이후 샤반느는 더 이상 프랑스 지리학계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활동은 만주와 관련이 깊다. 샤반느는 1904~1916년 최초의 중국학잡지인 ‘둥파오’(T'oung Pao, 동방, 1890 창간)의 편집자로 활동하는 등 프랑스 학술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⁶⁾ 특히 그는 1907년 만주에서 비문 및 불상을 연구했고, 그 주요 대상 중 하나가 광개토태왕비이다. 그는 광개토태왕비를 탁본하고 인근 압록강 지역을 조사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16) 샤반느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언어 또한 가르쳤다. 특히 콜레주드프랑스에서 만주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VIÉ, Michel. La Mandchourie et la «Question d'Extrême-Orient», 1880-1910, Cipango, Cahiers d'études japonaises, 2011, 18: pp. 19-78.

“샤반느는 1907년 3월 27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파리를 떠났고,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4월 14일 무크당(Moukden, 선양)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4월 22일 까지 머문다. 황궁을 방문하고 여기 보존되어 있던 60여개의 금속거울을 복 제했다. 이 복제물들은 오늘날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에 있다. 북쪽(pe ling)의 황묘를 방문하고 동쪽(toung ling)의 분묘들이 있는 코레(Corée)의 경계 까지 간다. 그는 실제로 이 지역에 머물며 알루(Yalou)의 퉁커(T'oung Keou)에 서, 옛 카오-커-리(Kao-Keou-li, 고구려) 왕조의 수도가 있었던 곳에 있는, 쿠랑(Courant)이 1898년 발표한 적이 있던 5세기의 비문과 인근 한 무더기의 무덤 들과 창첵스(Chang tch'eng seu)라 불리는 옛 산성을 연구하고자 했다. 만주에 서 돌아와 그는 파리에서 알았던 생페테스부르그 대학 젊은 강사 알렉세이 에프(Alexeieff)를 만나 5월 29일 폐강(Péking)을 출발한다.” (Cordier, 1917 : 126)

북경으로 돌아 온 후 바로 그는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했고, 이후 여러 편의 보고서와 발표회를 가졌다.¹⁷⁾

한편 1895년부터 ‘아날드제오그라피’의 ‘지리학 사건’을 집필하는 짐머만 또한 이전의 ‘지리학 사건’처럼 처음부터 크로포트킨이 러시아 저널에 발표 한 시베리아 철도 건설 상황을 소개한다.

짐머만이 작성한 ‘지리학 사건’은 다음과 같다.

1895

- 시베리아 철도(n°16, 387-388) : 크로포트킨이 러시아 저널에 발표한 시베

17) 이후 샤반느의 글이 ‘아날드제오그라피’에 실리지는 않지만, 당시 유명했던 샤반느의 아 시아 활동은 소식란으로 저널에 계속 언급된다. Rapport sur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de Kao-Keou-li, Paris, Alphonse Picard, MDCCCXVII, in-8, p. 27, fig., Peking, 27 mai 1907. Comptes rendus, pp. 549-575.

-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coréen de Kao-Keou-li par Edouard Chavannes(Toung Pao, 1908, pp. 236-63). Réimp. des Ctes. rendus de l'Ac. des I. et B. -L., avec l'addition de 4 planches.

- Voyage archéologique dans la Mandchourie et dans la Chine septentrionale. Toung Pao, 1908, pp. 503-528.

리아 철도 건설 상황 소개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라프스카이아까지 구간이 개통되었고, 시베리아 철도 총 7560km중 1620km가 완성되었다고 소개한다.

- 청일 평화조약 (n°17, 517-518) : 청일이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 주요 문구가 불어로 번역되었고, 3국간섭을 통한 결과들을 소개한다.

1896

- 청 내 유럽열강의 상업 경쟁(n°21, 348-350) : 프랑스 리용 상회가 중국에서 수행한 조사와 프랑스-청 간의 조약과 관련된 라이베르티(Flaminus Raiberti)의 보고서, 저널 '시대'(Temps)의 기사를 토대로 청나라의 상업 현황을 지역별로 설명한다. 만주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가장 큰 진전은 러시아가 얻은 것이다. 영국정부 또한 러시아의 부동항 획득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진 것처럼 보인다. 랄푸르(Ralfour)는 “행복한 사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함대는 강해졌고 키아오-체우(Kiao-chéou)항에서 겨울을 날 것이다. 마침내 만주를 통한 시베리아 철도가 승인되었다. 철로는 프랑스 회사가 건설할 것이고, 치치카르(Tsitsikar)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며, 황해와의 지선 연결이 보다 쉬워 질 것이다.”

1897

- 아시아에서 러시아 자산의 발전. 상업정책과 대공사(n°26, 187-189) : 서부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사업과정을 주로 설명하며, 시베리아 철도와 만주의 이야기가 이와 함께 등장한다. 시베리아 서부의 철도 완공으로 러시아의 이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연간 만명 수준의 이주자가 1895년 10만명을 넘었고, 1896년 전반기에만 14만 5천명이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만주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시베리아 철도와 관련해 가장 훌륭한 진척은 만주 노선일 것이다. 1896

년 12월 23일 칙령으로 라-청 회사가 철로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러시아 기병과 보병의 특수부대가 이를 감독한다. 공사는 1897년 8월 16일에 시작해서 6년 안에 마칠 예정이다. 노선은 비유-추루쿠타이(Vieux-Tsouroukhtai) 국경을 너머 치치카르, 울란첸(Oulantchen), 닌구타(Ningouta)를 지나 우수리 선에 있는 니콜스코이에(Nikolskoié)에서 끝날 것이다. 총 1,920 베르스트 중 1,423 베르스트가 중국 영토이다. ... 이 노선 변경의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다. 우수리와 아무르 지역은 만주에 비해 상업적으로 훨씬 분리하며, 농작물에 성장에 부적절하게 비가 내리며, 홍수도 많이 발생한다. 반면 만주는 축산, 농작, 거대 광물 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보다 안전한 출구를 제공한다.”

- 고고학 탐험 프로젝트(n°28, 375) : 미국 자연사 박물관 제섭(Morris K. Jesup)의 아시아와 미국 인디언의 인종적 차이를 알기 위해 알래스카와 북부 시베리아, 에스키모의 관찰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소개한다.
- 시베리아 철도가 만든 지리적 변화(n°28, 377) : 시베리아 철도의 노선변경에 따라 바이칼 지역부터 만주까지 새로운 연구가 진행됨을 소개하였다. 특히 만주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한편 만주 노선의 확정으로 아네르트(Anert)와 코마로프(Komaroff)가 지휘하는 공식적인 임무로 이 지역의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들은 시카타 알린(Sikhota Alin) 산맥과 프티 킵간(Petit Khingan)산맥을 집중적으로 보았다. 이 지역 사이로 주로 중국인들이 경작하는 비옥한 토지가 있으며, 중국인들은 북쪽으로 향하는 만주의 저지대 회랑에 모여있다.”

1898

- 시베리아 동부관련 러시아의 과학연구(n°32, 186-188) : 러시아 왕립 생폐테스부르크 지리학회의 지원을 받는, 바이칼 호 주변부터 시작하는 자연지리 연구를 소개한다. 아네르트와 코마로프의 연구를 재차 소개하고 보그다노비치(Bogdanovitch)와 키첸스키(Kichenski)의 오츠크해 연안 탐험, 두크두르(Djoukdjour) 산과 스타노보이 까지 이어지는 산의 조사연구를

설명한다. 이어 크로포트킨이 1875년부터 진행한 시베리아의 개괄부터 시작해서 현재 연구가 새로 밝힌 지리학적 연구들을 정리한다.

- 청의 상업 분점(n°33, 283-285) : 독일의 키아오체우(Kiaotchéou) 점령이 예전 아프리카 앙그라 페케나(Angra Pequena)의 상황과 유사하며, 열강의 외교적, 상업적인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독일과 영국의 연합이 러시아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면서 만주와 관련된 상황을 짚는다.

“블라디보스톡의 창설, 아무르강으로의 증기선 운항, 시베리아 철도의 힘겨운 운영, 지난해 만주철도의 이양, 청나라 국경에 밀집한 군대, 이 모든 것들이 얽혀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했던 러시아 정책이고 어느 순간 추진한 정책도 아니다. 오늘날 만주 북부는 점차 러시아 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점차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베리아 철도를 단축시키고 만주 중앙의 비옥한 지역의 상업을 보장할 것인 만주철도 공사가 시작되었고 러시아 군대가 협약에 따라 만주 지역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돈이 이 지역을 돌고 있고 한마디로 침투가 시작되었다. 이 상황에서 키아오-체우의 점령과 청의 대출사업은 러시아 정부가 오랫동안 진행한 정책의 결과를 챙기고자 하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했다. 3월 3일 중국으로부터 키아오-체우와 동일하게 아더항과 리아오둥(Liao-tong)끝의 탈리엔-우안(Talien-ouan) 99년 조차를 받아냈다. 두번째로 작년에 만주철도와 관련해 진행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베두네(Bedouné)에서 출발해 쿠앙-창(Kouang tcheng)과 무크당(Moukden)을 지나 아더항으로 가는 노선 건설의 승인을 선언했다. 이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없는 중국정부는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3월 27일 아더항의 러시아관은 고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무장한 군인이 있으며 몇몇 연대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 부대가 계속 극동으로 빠르게 파견되고 있다. 이런 군사적 준비는 당연히 영국을 겨냥한 것이다. ... 중앙 만주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영국이 이에 욕심이 없을 리는 없다. 향후 노선에는 현 청왕조가 탄생한 곳, 무크당이 있고, 이는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영국은 아더항의 러시아 점거를, 키아오-체우의 점령을 승인한 것처럼 러시아 철도망 연결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1895년 청에 승리한 과실을 못 챙긴 일본은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에

이-하이-우에이(Oucéi-Haï-Oucéi) 점령을 포기해야만 했고, 이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 다 그것이 코레(Corée)일 것 이라 믿는다.”

1899

- 시베리아 철도 공사 상태(n°38, 184-185) : 바이칼호 주변의 시베리아 철도 공사를 소개한다. 이 구간은 러시아가 공사를 맡았다. 모스크바에서 톰스크까지의 첫번째 구간이 개통되었고, 12월 1일 부터 하루에 한편씩 운행됨을 알렸다. 이미 개통된 시베리아 철도로 승객과 많은 물자가 이동하고 있고, 바이칼 너머 만주 쪽으로 이민자들이 가고 있음을 알린다.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정책에 따라 1898년 20만 가족이 이주했고, 1899년에는 20만 이상의 가족이 등록했고, 만주는 정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착에 따라 러시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한다.
- 극동 영리 협약(n°40, 379-380) : 1899년 4월 16일 영국과 러시아가 청의 철도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는 청에게 만주에서 폐강까지 직접 연결하는 철도 이양을 요구했다고 전한다.

‘지리학적 사건’이 시베리아 철도에 주목하듯, 1890년대 만주를 언급한 마지막 논문 또한 시베리아 철도와 관련된 것이다. 1899년의 실뱅 레비의 논문 ‘시베리아를 통해 나가사키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시베리아 철도가 막 건설된 19세기의 마지막 만주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 또한 지리학자가 아닌 산스크리트어 등 고대 인도를 연구하던 프랑스 인도학자였다.¹⁸⁾ 그는 1897년 인도, 네팔, 일본으로 연구를 떠났으며 프랑스로 돌아오는 길이 시베리아, 러시아를 거쳐 귀국했으며, 이 논문은 당시의 귀국길의 상황을 보여주는 글이다.¹⁹⁾

18) 실뱅 레비(Sylvain Lévy, 1863-1935)는 인도와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 운영에 도움을 준 ‘프랑스극동학회(EFEO)’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 이후 1921년 인도, 네팔, 극동 두번째 연구를 떠나며, 이때에도 만주와 소련을 거쳐 1923

나가사키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로 가는 레비의 여행기는 나가사키에서 배표를 어떻게 샀는지, 한 배에 누구와 함께 탔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는데, 그의 글에서 우리는 시베리아 철도가 건설되며 급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글은 “일본에서 시베리아로 주요 노선은 나가사키에서 출발한다. 예조(Yezo) 섬의 하코다테(Hakodate)는 가장 짧은 길을 제공한다. 하지만 도쿄(Tokio), 교토(Kioto), 오사카(Osaka), 나고야(Nagoia)에서 출발한다면” 으로 시작한다. 그는 예전과는 다르게 러시아의 극동지역 팽창으로 민간인과 군인의 이동경로가 많이 달라졌음을 설명한다.

“러시아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르세이유에서 요코하마까지 가는 대항로는 영국이 기항지마다 있는데, 나가사키는 이것을 깨뜨렸다. 시작부터 새롭고 강력한 경쟁의 문으로 들어간다. 여전히 지역에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의 대부분은 영어이지만 러시아식의 사람 부르는 소리나 물품들이 벌써 자리잡았다. 지역 토착민들은 러시아어를 은어처럼 쓴다. 나가사키를 마주한 이나사(Inasa) 마을은 러시아의 작은 식민지이다. 여기서 태평양 함대의 해병 가족들이나 아시아북부의 추위에 심한 병을 걸린 병사들이 머무르고 있다.” (Lévy, 1899 : 331)

그가 선택한 귀국 노선은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것이었다. 조선을 통과하는 일정에서 일본과 조선의 유사하고 다른 지형들, 속담들, 사람들 모습의 관찰이 이어지고 블라디보스톡의 모습을 전한다.

“블라디보스톡은 이미 큰 도시이며, 상당한 사업의 물결이다. 네 개의 큰 해운회사가 자리잡았고, 러청은행(banque Russo-Chinoise)은 번창하는 지부를 세웠다. 상인 길드는 9개에 달한다. 함부르크에서 온, 시베리아에 여러 지점을 낸 쿤스트(Kunst) 알베르스(Albers) 상가는 고딕 형식의 웅장한 건물이었

년 귀국하였다. 1927년부터 일본에 머물며 프랑스-일본관의 첫 관장이 되었으며 1929년에는 네팔에 머물렀다. 1934년 파리 일본연구소의 부의장으로 재직 중 사망한다. 한편 실행 레비는 20세기 초부터 ‘파리 이스라엘 연합’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유대주의 활동을 했다.

고, 이 곳엔 온통 독일 제품이 있었다. 청과 일본 이외에 오직 독일만이 블라디보스톡에 영사관이 있었다. ... 블라디보스톡의 물가는 비쌌다. ...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무르강을 따라 하바로프스크까지 715km를 가는 길은 의문의 시베리아 철도의 시작이었다. 아더항에서 만주를 거쳐 가는 길은 옛 길과 뒤죽박죽이었고 처음의 노선이 다시 채택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일 필요할 것이다.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편의 기차가 있었고, 715km를 가는데 40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딘가. 최소한의 편안함이 있었다. 열차의 칸은 크고 넓고 낮에는 뒤로 젖혀져 의자가 되는 접이식 침대도 있었다. 각 칸에는 젖혀지는 책상이 있었고, 각 량에는 화장실이 있다. 우리는 편하게 다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1등석과 2등석이 사용하는 식당칸이 있으며 음료수는 없지만 1루블로 충분한 저녁을 할 수 있다. 기차는 매우 번잡했다. 3등석에는 러시아 농민들과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뒤섞여 있었고 지옥같은 난리를 피웠다. 역은 25-30km 간격으로 우수리 지역의 코사크 식민지로 기능했다. 기차의 통로에서는 일시적인 시장이 형성된다. 농민들이 우유, 밀전병, 절인오이, 사과를 가져와 팔았다. 일단 아무르 강 유역으로 들어가면 인적 없고 꽃향기 나는 넓은 평원으로 펼쳐졌다. 이 엄청난 고요함의 끝에 만주의 산들이 있었다. 곧 이만(Iman)을 지나고 우수리 강은 이미 폭이 넓었으며, 우수리의 꿈, 호랑이, 멧돼지가 사는 높고 울창한 숲 사이로 들어갔다. ...” (Lévy, 1899 : 335)

이어 레비가 관찰한 연해주(Province Maritime)의 수도이기도 한 하바로프스크는 단순히 행정도시가 아니었고, 철도와 수상교통의 중심지이자 3개의 교회가 있는 러시아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14,500명의 주민 중 군인 5,000명과 중국인 3,500명이 있었고, 이곳 지휘관 그로데코프(Grodékov)는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박물관을 세우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동물과 인종학을 보여주는 콜렉션이 이익을 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만주의 높은 언덕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강들의 모습을 전하고 레비의 일정은 시베리아로 들어간다. 이 글이 바로 ‘아날드제오그라피’에서 만주의 실제 환경을 보여주는 첫번째 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890년대 논문을 발표한 프랑스 학자 세 명은 모두

지리학자가 아니었다. 논문을 발표한 유일한 지리학자는 러시아인 생페테스부르크 대학의 웨이코프였을 뿐이며, 나머지 프랑스 지리학들의 작업은 '노트와 소식전달'(Notes et correspondance)과 '지리학적 사건'(Chronique géographique)을 정리하는 일에 그쳤다. 프랑스 지리학자들의 만주지역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쉽게 찾을 수는 없었다.

IV. 20세기 초의 '만주'

20세기 초 '아날드제오그라피'에서 '만주를 다룬 첫 번째 논문 역시 지리학자가 아닌 쥘 르그라(Jules Legras, 1867-1939)였다. 러시아 연구자였던 르그라는 당시 프랑스에서 만주를 가장 잘 알고 있던 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이력은 독특했다.²⁰⁾ 고등사범학교(1886-1889) 출신인 그는 독일어를 전공했지만 1889년부터 1929년까지 러시아문학을 가르쳤다. 어린시절인 1880년 그는 러시아를 여행했고 여기서 러시아어를 배운다. 1896년 시베리아를 가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서 우랄산맥 근처인 페름(Perm)까지 갔고 이후 키르키스탄과 옴스크(Omsk) 지역의 마을을 연구한다. 1898년 교육부 사업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타기 위해 다시 러시아로 갔으며, 바르나울, 톰스크, 크라스노이아스크 등을 거쳐 블라고베첸스크(Blagovechtchensk)와 하바로브스크(Khabarovsk)까지 갔다. 이후 블라디보스크에서 일본의 나가사키에 도착하고, 오사카, 교토를 지나 도쿄에 도착한다. 이후 태평양을 건너 북미를 여행하고 대서양을 건너 파리로 돌아왔다. 여행 후 쓴 '시베리아'(1899)는 그 후 변화하는 시베리아를 연구하기 위한 주요 입문서가 되었다.

20) 1914년 1차세계대전 발발시 쥘 르그라는 48세였지만 전쟁에 참여한다. 프랑스 군대가 아닌 러시아 군 중위로 참전하고 1916년 프랑스군의 대위가 되어 무르만스크(Mourmansk)로 투입된다. 전쟁이 끝나고 1920년 명예훈장을 받고, 1921년 전쟁의 상황을 전하는 "러시아의 기억"을 출간했다. 일생 중 총 10년 넘게 러시아에서 보낸 그는 프랑스의 러시아 문학 연구의 토대를 만든 학자이기도 하다.

[표 2] 1900년대 만주관련 ‘아날드제오그라피’ 논문 및 기사

1900	[C] Zimmermann M. 청의 철도 (n°43, 86-88) [C] Zimmermann M. 청에서 유럽의 확장 (n°43, pp. 88-90) [N] Fauvel A. A. 페캉(Peking) - 뉴추앙(Nicou-Tchouang) 철도(n°46, 373-376)
1901	[C] Zimmermann M. 아시아의 러시아인(n°49, 87-89) [C] Zimmermann M. 만주의 러시아인 (n°50, 186)
1902	[N] Labbé P. 1900년 러시아 이민 통계 (n°56, 173-177) [C] Zimmermann M. 시베리아 철도의 완성 (n°56, 184-185)
1903	[A] Legras J. 만주철도 (n°61, 31-46) [C] Zimmermann M. 러시아 극동 본부와 부서 (n°66, 466-467)
1904	(없음)
1905	[A] Gallois L. 최근 공사에 따른 동아시아의 구조 (n°75, 245-258) [C] Zimmermann M. 대한제국의 일본인. 철도네트워크의 형성(n°76, 381-383) [C] Zimmermann M. 러일 평화조약 (n°78, 469-470)
1906	[A] Passerat C. 아시아 장마비 (n°81, 193-212) ²¹⁾
1907	[C] Zimmermann M. 아시아 러시아의 철로. 아무르 노선(n°86, 187-188) [N] Woelikof A. I. 파스라의 아시아 장마비 논문 관련 (n°88, 360-361)
1908	[C] Zimmermann M. 시베리아로의 러시아인 이주(n°92, 181-182) [C] Zimmermann M. 만주와 북청에서 샤반느의 고고학 탐험(n°94, 369-370)
1909	[N] Woelikof A. I. 러시아의 농업 자원 (n°100, 369-370)

1902년 그는 시베리아철도를 지나 다시 한번 만주까지 여행을 했고, ‘아날드제오그라피’의 ‘만주철도’(1903)는 당시의 상황을 쓴 논문이다. 르그라의 논문은 만주와 관련해 가장 많은 지리학적 설명이 있는 논문이자, ‘아날드제오그라피’에 실린 여행을 통한 관찰지로서의 마지막 지역 연구이기도 하다.²²⁾

21) 샤를르 파스라(Charles Passerat, 1877-1911)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두 측면에서 지리학을 연구한 학자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주로 북극과 남극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으며, 아시아의 장마기후(Mousson)을 연구하며 강수량에 따른 아시아 지역 특징을 연구했다. 논문이 출간된 뒤 바로 러시아 지리학자 웨이코프가 논문 내용 중 몇몇 오류를 지적하였다.

22) 르그라의 글 이후 만주는 1930년대 만주국이 설립된 후에야 다시 언급되고, 그때의 논문은 국가의 경제와 농업을 설명하는 근대 지리학 중 계통지리학적 논문이 된다.

르그라의 논문은 시베리아 철도 중 만주로 들어가기 직전인 바이칼에서에서 시작해서 다렌(Dal'nii)으로 끝나는 여정이다. 여행의 각 구간별로 주변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었고, 1902년 6월에 집필한 논문이 출간될 무렵인 1902년 11월, 당시 10월까지 벌어진 추가적인 변화를 보내와 후기 형식으로 전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1905년의 루시앙 갈루와(1857-1941)의 논문 ‘최근 공사에 따른 동아시아의 구조’는 만주와 관련된 프랑스 지리학자 최초의 논문이다. 고등사범학교(1881-1884)에서 지리학사를 전공한 그는 1893년부터 소르본에서 지리학 강의를 했다. 1898년부터 10년 동안 고등사범학교 지리학 교수였으며, 이후 소르본으로 옮겨 은퇴할 때(1927)까지 지리학 교수로 있었다. ‘아날드제오그라피’의 초기 작업부터 들라블라쉬와 함께 했으며, 특히 라브노의 참고문헌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갈루와가 ‘아날드제오그라피’에 쓴 두 편의 동아시아 관련 논문은 그의 전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박사논문은 ‘르네상스 시대 독일 지리학자들’(1890)과 프랑스 수학자, 천문학자, 지도학자였던 16세기 학자 “오롱세 피네(Oronce Fine)”였으며 라틴어로 썼다.²³⁾ 들라블라쉬의 제자였던 그는 이후 프랑스의 리옹, 보졸레, 동브 등 프랑스 소지역을 연구했으며, 갈루아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지방의 ‘지명의 탄생’이었다.²⁴⁾

역사, 특히 서양의 전통적인 학문 속에서 출발한 그의 학문은 라브노와 함께 지리학 참고문헌을 정리하며 이후 현대 지리학의 지역분석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²⁵⁾ ‘아날드제오그라피’의 두 논문은 이런 그의 관심을 보여주는 글이지만, 지리역사 전공인 그조차도 동아시아 관련된 글은 정치지리학

23) 정확한 논문 제목은 ‘De Orontio Finaeo gallico geographo’이다.

24) Paul Claval, Histoire de la géographie française de 1870 à nos jours, Nathan, 1998, p. 134

25) 그는 자신보다 9살 어린 라브노가 1937년 죽었을 때의 추모사를 쓰기도 했다. Gallois Lucien. Louis Raveneau (1865-1937). In: Annales de Géographie, t. 46, n°264, 1937. pp. 640-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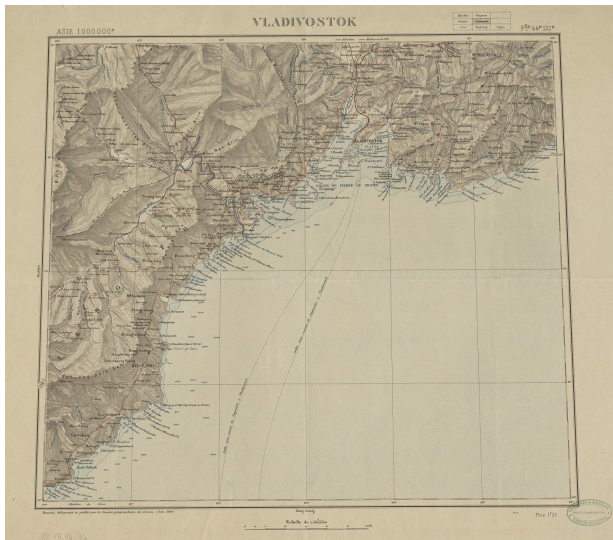
적인 논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아날드제오그라피’가 다루었던 만주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1900년대 중반, 러일전쟁 전후로의 만주에서 지리학적 지식은 학자가 아닌 군대에서 진행되었다. 1897년 설립된 프랑스 ‘지리부대’(Société géographique de l’armée)는 1900년부터 아시아의 지도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그 소식을 ‘아날드제오그라피’에 알렸다.²⁶⁾ 이 소식에서 프랑스 지리부대는 1889년 창토포(Tcheng-te fou), 무크당(Moukden), 블라디보스톡, 페킹(Pékin), 서울, 강릉, 낭강(Nankin), 켈파에르(Quelpaërt) 총 8장의 100만분의 1 아시아 지도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1895년 이후 이 시기는 러시아의 만주철도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였고, 프랑스는 이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 프랑스 지리부대는 공사를 위한 만주지역의 측량과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1900년대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지도제작을 완성한다. 지리학자가 아닌 전문 기술인들을 통한 지리적 지식의 생산은 비단 아시아만의 일은 아니었다. 당시 ‘아날드제오그라피’의 많은 사건들과 소식 중 중앙아시아 등 자원이 발굴되는 지역은 지리학자가 아닌 정부 소속 지질학자들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26) La carte au millionième du Service géographique de l’armée. In: Annales de Géographie, t.9, n°44, 1900, pp. 176-177.



[그림 5] 프랑스 지리부대가 생산한 만주 지도(Ningouta, 1905 인쇄)



[그림 6] 프랑스 지리부대가 생산한 만주 지도(Vladivostock, 1905 인쇄)

이런 학계가 아닌 전문 기술직들의 지리학적 지식 생산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10년대 ‘아날드제오그라피’에서 만주를 언급한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한, 에드וא르 블랑(Edouard Blanc, 1858-1923)이다.

<표 3> 1910년대 만주관련 ‘아날드제오그라피’ 논문 및 기사

1910	[C] Zimmermann M.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n°108, 468)
1911	[C] Zimmermann M. 러시아인 시베리아 이주(n°111, 282-283) [C] La Quinzaine. 호홉기 페스트의 질병지리학 응용 (n°114, 459-460) [C] Zimmermann M. 중화민국의 철도와 대외교역 (n°114, 461-465)
1912	[C] Zimmermann M. 블라디보스톡에서 콜리마까지의 뱃길(n°115, 93) [C] Zimmermann M. 만주와 중국의 기후자료 (n°117, 277-278) [C] Zimmermann M. 안통(Antong) - 묵당(Moukden) 철도(n°117, 278-279)
1913	[C] Zimmermann M. 중국의 대외 의존. 몽고에서의 러시아 행동.(n°121, 105-107) [C] Zimmermann M. 아시아의 철도. 아무르 철도 (n°124, 377)
1914-15	(없음)
1916	[A] Blanc E. 시베리아와 아시아 스텝의 식민화와 개발 (n°134, 124-142) [A] Blanc E. 러시아 아시아의 새로운 철도망 (n°136, 263-290)
1917	[A] Blanc E. 러시아 제국의 미래 항로망 (n°140, 106-137)
1918	(없음)
1919	(없음)

에두아르 블랑은, ‘두 세계의 잡지’(Revue des deux Mondes) 창간에 참여한 프랑스 문학가 테레스 방쥬(Thérèse Bentzon, 1840-1907)²⁷⁾의 아들이다. 1876년 ‘물 및 숲 관리국’(지금의 산림청과 유사한 조직)에 속했고 이후 ‘교량및 도로국’ 전 문가였던 그는 튀니지의 오아시스 책임자였다. 그는 사하라의 사막화를 연구했으며 아프리카의 새로운 철도 노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1890년부터 ‘파리 지리학 협회’(1890)의 회원이 되었고, 이후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에 파견되는 등 중앙아시아를 탐험했고, 이곳의 식생과 인종, 고고학을 연구했으며,

27) 그녀는 미국 문학가와 교류가 많았으며 그 중에는 제인 아담스(Jane Addams)도 있었다. 정치적으로 그는 페미니스트와 노예폐지주의의 편이기도 했다.

새로운 철도 건설을 위한 가능성을 조사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및 많은 탐험가와 교류한 그는 1892년 러시아에서 프랑스 지리학계의 탐험 결과들을 발표했다. 그는 1890년대부터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식민지 지리에 관한 많은 글을 ‘아날드제오그라피’에 발표해왔었다.



[그림 7] 1895년 나다르(Paul Nadar)가 촬영한 에두아르 블랑

1904년 바이칼 호수의 철도 건설이 진행을 보기 위해 동아시아를 방문했고, 주로 시베리아 북부와 중앙아시아의 철도 및 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 논문을 쓰기 직전인 1914년 ‘러시아 아시아 수로 공사의 문제점 파악’이란 보고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그는 학계가 아닌 현장에서 연구하고 이를 ‘아날드제오그라피’에 발표한 지리학자였고, 1910년대 저널에서 만주를 언급한 유일한 논문들이다.²⁸⁾

1920년대와 3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날드제오그라피’의 만주관련 아시아 기사는 ‘지리학 사건’ 조차 그 수가 확연하게 준다. 하지만 만주와 관련된 글

28) 그는 쥘 베른의 소설 ‘클라우디스 봄바르낙(Claudius Bombarnac)’의 주인공 모델이기도 했다.

은 단순한 조사와 소식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산업분야들이었다. 특히 쥘 시옹(Jules Sion)과 피에르 구루(Pierre Gourou)와 같은 신진 지리학자들이 단순한 소개와 정리에 그쳤던 아시아 지역지리학을 자신만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며 발전시켰고, 그 결과들이 만주와 관련된 '지리학적 사건'들에서도 드러난다.

<표 4> 1920년대 만주관련 '아날드제오그라피' 논문 및 기사

1920	[C] Demangeon A. 중국의 철도(n°159, 234-235) [C] Sion J. 중국의 산업과 광물자원(n°161,394-397) [C] Sion J. 중국의 상업(n°161, 397-398)
1921	(없음)
1922	[C] Maurette F. 만주의 농업 (n°169, 88-90) [C] Maurette F. 만주의 다이렌 항(n°169, 90-91) [A] Gallois L. 극동과 평화. 워싱턴 회담의 결과(n°171, 244-259)
1923	(없음)
1924	(없음)
1925	(없음)
1926	[C] Arnaud G. 극동의 소련 정책 (n°190, 376-379) [N] De Schokalsky J. 1915-1925 시베리아의 유역 공사 (n°195, 280-281)
1927	[N] Ruellan F. 제 3차 환태평양 학술대회. 도쿄, 1926 (n°201, 258-259) [C] Arnaud G. 티엔진(Tientsin)의 '고등 산업 상업 프랑스 학교'(IFHEIC) (n°203, 475-476)
1928	[C] Arnaud G. 향후 중국에서의 과학탐험 (n°206, 186-187) [C] Sion J. 만주 (n°207, 279-280)
1929	[A] Dennery E. 일본의 과잉인구 (n°212, 148-168) [C] Sion J. 일본의 석유와 만주 (n°215, 521-522)

1920년 시옹의 '중국의 산업과 광물자원'은 논문이 아니라 발표된 통계나 자료를 설명하는 '지리학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농업생산물의 주종이 교역을 위한 잠업이 되고, 철, 석탄 주변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을 추측한다. 또한 이에 따른 교통망의 변화와 지역을 둘러싼 지리 단체의 활동,

일본, 중국의 국가정책의 변화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지역지리학의 분석틀을 보여준다.

1922년 모레트(Maurette Fernand)의 ‘만주 농업과 다이렌 항’ 또한, 시옹의 글 처럼, 유럽 내부에서 분석되는 방법론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지리학적 방법론의 정착을 보여주었다. 만주 농업에서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잉여농산물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경작지의 작물 분포와 면적 등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고, 다렌항의 경우에도 교역품목들과 국가들의 변화, 지리적 인 영향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반면 에티엔 데느리(Etienne Dennerly, 1903-1979)는 이전 시기, ‘아날드제오그 라괴’가 만주지역을 다루던 정치지리학적 설명을 발전시켰다. 그는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전공했고(1923-1926) 교수자격시험 통과 후 바로 오늘날 ‘정책학교’(Science Po.)의 전신인 ‘정치과학자유학교’(Ecole libre des sciences politique)와 ‘고등상업학교’(Hautes études commerciales)의 교수가 된다. 정치와 상업의 두 그랑제콜에서 교편을 잡은 후 그는 극동의 정치 경제전문가로 활동한다.²⁹⁾

1929년 데느리의 논문 ‘일본의 과잉인구’는 경제구조, 노동력의 변화와 함께 이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가 보기에 일본은 확장하는 영토에 맞지 않는 인구정책, 인구이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언론인들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해결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인구 증가를 멈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인구문제와 경제문제 두 방식이 있다. … 과잉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29) 이후 1940년부터 드골 장군의 편에 서고, 1941-1944년 드골 임시정부의 정보국장을 맡았다. 이 인연으로 1945년부터 20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다. 폴란드, 스위스에서 프랑스 대사를 거쳐 1961-1964년 주일본대사로 있었다. 이후 1964년부터 1975년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을 역임했다. 이 시기 프랑스의 극동자료들이 정리되었고, 그 중 하나가 적지심체요절이었다.

주가 효과적일 것이다. 포츠머스 조약 이후 전세계는 일본이 만주를 점령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만주가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지난 20년, 그 풍부한 자원, 그 기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만주로 간 일본인 9만 명에 불과하다. ...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일본인은 2.25%, 대만에는 4.5%일 뿐이다. ... 일본은 자신의 인구로 식민지를 만들지 않는다. ... 사실상 일본인은 움직일 줄도 모르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Dennerly, 1929 : 148-168)

<표 5> 1930년대 만주관련 '아날드제오그라피' 논문 및 기사

1930	[N] Demangeon A. 극동의 과잉인구와 이주 (n°220, 422-423)
1931	[C] Gallois. L. 남만주의 야금업 (n°224, 221)
1932	[N] Clozier R. 중국의 상업 (n°233, 530-534)
1933	[A] Jorré Georges. 시베리아 식생의 최근 연구(n°236, 162-174) ³⁰⁾
1934	[C] Gottmann Jean. 시베리아 동부의 새로운 공업중심(n°244, 445-446) [C] Gottmann Jean. 아시아의 소련 식민지(n°244, 446) [N] Albitreccia Antoine. 만주국(Manchoukuo) 1932-1933 (n°246, 652-657)
1935	(없음)
1936	(없음)
1937	[A] Dennerly Étienne. 극동문제. 극동 열강들의 경제균형의 변화(n°262, 337-368)
1938	[N] Ruellan Francis. 만주국의 농업 (n°269, 505-507)
1939	(없음)
1940	(없음)

19세기 '아날드제오그라피'의 창간 이후 '지리학 사건'과 주요 정치지리학 논평에서 보여주었던 방법론을 계승한 데느리의 글은 자원을 쟁탈하고 교역을 위해 영토를 장악하려던 국가의 시도들이, 이제 인구를 이주 배치시키며 영토를 관리하는 국가체제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1937년의 논문, '극동문제'는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역동을 살

30) 산악지리학자였던 조르주 조레(Georges Jorré, 1899-1956)는 1930년대 러시아와 관련한 상황을 '지리학적 사건'에 소개하였다. 특히 본 논문이 출간된 1930년대에는 러시아의 지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리학적 범위는 파미르 고원부터 시베리아 북부까지 넓은 범위였다. 같은 시기 프랑스 및 유럽의 산악지형에 대한 논문, 수력발전에 관한 논문도 있다.

피는데, 이는 시시각각 변화 속에서 미지의 영역들을 발굴해가며 겪었던 19 세기의 변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계승한 데느리의 작업은 더 이상 지리학 분야에 간혀있지 않으며, 국제정치학 분야로 넘어가게 된다. 2차세계대전까지의 전쟁 직전의 상황은 기존 지리학의 방법론과 주제 의식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V. 결론

‘아날드제오그라피’는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패배에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는 지적 움직임에서 출발한 국가지리학의 탄생이었다. 고등사범학교 출신 교수와 제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프랑스 지리학과는 지질, 자연지리의 학문에 기초한 자연과학적 요소를 띤 지역을 연구하는 과학을 주창했지만, 설립초기 ‘만주’를 둘러싼 지역을 다루는 방식은 제국주의적인 팽창하는 영토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만주는 학문으로서의 지리학적 대상이 되지 못했고 저널에 등장하는 ‘만주’는 당시 지역을 잘 아는 역사학, 종교학, 혹은 임무 수행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던 학자들 중심으로 긴 글이 생산되었다. 반면 지리학자들은 세계의 지리학 책을 모으고, 분류하고,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메모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여러 열강들이 충돌하고, 일본이라는 새로운 열강이 등장하는 지역, 하지만 그 곳에 대한 정보는 거의 모르는 상태가 주는 공백기는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쌓아왔던 지식들의 땅인 유럽과는 전혀 다른 지식체계가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에 가장 근대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가장 근대화된 전투로 여겨진 러일전쟁의 모습은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날 전조이기도 했다.

이후 1차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의 전쟁기술 근대화가 보편화되고 국경이 안정되며, 국제 질서가 안정화됨에 따라, 또한 아시아의 지리학적 지식

이 축적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국가지리학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새로운 지리학자들이 양성됨에 따라, 아시아를 바라보는 지리학적 지식들은 자원을 활용하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새롭게 논문을 쓴 신진학자들 중심의 학계에서 점차 현대 지리학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그 변화 속에 '만주'는 국가체계가 잡히고, 농업, 산업 등 일하는 국민이 지역에 배치되는 공간으로, 하지만 그 곳을 지배하는 일본의 국민들은 멀리 떨어져 권력만 순수하게 공간을 이동하며 집행하는 기계를 꿈꾸는 판타지의 대상으로 머물렀고,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지리학적 지식은 당시 프랑스 지리학계에서는 등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프랑스 지리학은 영토의 변화만을 좇아 해석하기 급급하다 자연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읽는 방법론들이 체계화시키고 있었고,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몇 번의 전쟁을 거치며 경제, 정치, 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이었다.

참고문헌

1. Annales de Géographie (AG) 만주관련 논문

[A] : 아티클, [N] : 노트와 소식, [C] : 지리학적 사건

- [N] Camena d'Almeida, Le chemin de fer transsibérien, AG 1, n°1, 1892, 111-112
[C] Guillot, E, Le Transsibérien, AG 1, n°1, 1892, 114-115
[A] Raveneau Louis, Notre connaissance de l'Asie, AG 1, n°2, 1892, 160-176
[C] Froidevaux Henri, Le chemin de fer transsibérien, AG 1, n°5, Bibliographie, 1892, 502-503
[C] Froidevaux Henri, Exploration dans la Sibérie orientale, AG 1, n°5, Bibliographie, 1892, 503
[C] Froidevaux Henri, Progrès du chemin de fer transsibérien, AG 2, n°6, 1893, 261-262
[C] Froidevaux Henri, Le colonel Poutiata dans la région de l'In-Chan et du Khingan, AG 2, n°6, 1893, 263
[C] Froidevaux Henri, Explorations sibériennes, AG 2, n°7, 1893, 409
[C] Froidevaux Henri, Explorations sibériennes, AG 3, n°9, 1893, 115-116
[N] Lémosof, Notes et correspondance, Travaux géographiques des russes, AG 4, n°15, 1895, 225-232.
[C] Zimmermann Maurice, Le chemin de fer transsibérien, AG 4, n°16, 1895, 387-388
[C] Zimmermann Maurice, Le traité de paix sino-japonais, AG 4, n°17, 1895, 517-518
[A] Chavannes Édouard, Les résultats de la guerre entre la Chine et le Japon, AG 5, n°20, 1896, 216-233
[C] Zimmermann Maurice, Rivalité commerciale des puissances européennes en Chine, AG 5, n°21, 1896, 348-350
[C] Zimmermann Maurice, Le développement des possessions russes en Asie, Politique commerciale et grands travaux, AG 6, n°26, 1897, 187-189
[N] De Martonne E, Notes et correspondance, La mission lyonnaise d'exploration en Chine, AG 6, n°27, 1897, 273-276
[C] Zimmermann Maurice, Un projet d'expédition anthropologique, AG 6, n°28, 1897, 375
[C] Zimmermann Maurice, Progrès géographiques causés par le Transsibérien, AG 6, n°28, 1897, 377
[A] Woeikof Alexandre Ivanovitch, Le climat de la Sibérie orientale comparé à celui de l'Amérique boréale, Premier article, AG 6, n°30, 1897, 385-407
[A] Woeikof Alexandre Ivanovitch, Le climat de la Sibérie orientale comparé à celui de

- l'Amérique boréale (Fin.), AG 7, n°31, 1898, 1-13
- [C] Zimmermann Maurice, Travaux scientifiques des Russes en Sibérie Orientale, AG 7, n°32, 1898, 186-188
- [C] Zimmermann Maurice, Le partage commercial de la Chine, AG 7, n°33, 1898, 283-285
- [C] Zimmermann Maurice, Le Partage de la Chine - Les Chemins de fer, AG 7, n°34, 1898, 378-379
- [N] Havret H., Les travaux géographiques des Jésuites en Chine, AG 8, n°38, 1899, 172-175
- [C] Zimmermann Maurice, États des travaux du transsibérien, AG 8, n°38, 1899, 184-185
- [A] Lévy Sylvain, De Nagasaki à Moscou par la Sibérie, AG 8, n°40, 1899, 330-349
- [C] Zimmermann Maurice, Extrême-Orient, L'accord anglo-russe, AG 8, n°40, 1899, 379-380
- [C] Zimmermann Maurice, Les chemins de fer en Chine, AG 9, n°43, 1900, 86-88
- [C] Zimmermann Maurice, L'expansion européenne en Chine, AG 9, n°43, 1900, 88-90
- [N] La carte au millionième du service géographique de l'armée, AG 9, n°44, 1900, 176-177
- [N] Fauvel A.A., Le chemin de fer de Peking à Niéou-Tchouang, AG 9, n°46, 1900, 373-376
- [C] Zimmermann Maurice, Les Russes en Asie, AG 10, n°49, 1901, 87-89
- [C] Zimmermann Maurice, Les Russes en Mandchourie, AG 10, n°50, 1901, 186
- [N] Les cartes de Chine du Service géographique de l'Armée, AG 10, n°51, 1901, 276-277
- [C] Zimmermann Maurice, Le Comité de l'Asie française, AG 10, n°51, 1901, 280-281
- [N] Labbé Paul, Statistique de l'émigration russe en l'année 1900, AG 11, n°56, 1902, 173-177
- [C] Zimmermann Maurice, L'achèvement du Transsibérien, AG 11, n°56, 1902., 184-185
- [A] Legras Jules, Le Transmantchourien, AG 12, n°61, 1903, 31-46
- [C] Zimmermann Maurice, Asie russe, La lieutenance générale et le ministère de l'Extrême-Orient, AG 12, n°66, 1903, 466-467
- [A] Gallois Lucien, La structure de l'Asie orientale d'après les travaux récents, AG 14, n°75, 1905, 245-258
- [C] Zimmermann Maurice, Les Japonais en Corée, Création d'un réseau de chemin de fer, AG 14, n°76, 1905, 381-383
- [C] Zimmermann Maurice, Le traité de paix entre la Russie et le Japon, AG 14, n°78, 1905, 469-470
- [A] Passerat Charles, Les pluies de mousson en Asie, AG 15, n°81, 1906, 193-212
- [C] Zimmermann Maurice, Voies ferrées en Asie Russe, La ligne de l'Amour, La ligne de la

- Sibérie au Turkestan, Doublement du Transsibérien, AG 16, n°86, 1907, 187-188
- [N] Woeikof Alexandre Ivanovitch, À propos de l'article de Mr, Passerat sur les pluies de mousson en Asie, AG 16, n°88, 1907, 360-361
- [C] Zimmermann Maurice, L'émigration russe en Sibérie, AG 17, n°92, 1908, 181-182
- [C] Zimmermann Maurice, Voyage archéologique de Mr Ed. Chavannes dans la Mantchourie et la Chine du Nord, AG 17, n°94, 1908, 369-370
- [N] Woeikof Alexandre Ivanovitch, Les ressources agricoles de l'Asie Russe, AG 18, n°100, 1909, 369-370
- [C] Zimmermann Maurice, L'annexion de la Corée par le Japon, AG 19, n°108, 1910, 468
- [C] Zimmermann Maurice, L'émigration russe en Sibérie, AG 20, n°111, 1911, 282-283
- [C] La Quinzaine, Application de la géographie médicale à la peste pneumonique, AG 20, n°114, 1911, 459-460
- [C] Zimmermann Maurice, Les Chemins de fer et le commerce extérieur de la Chine, AG 20, n°114, 1911, 461-465
- [C] Zimmermann Maurice, La voie de mer de Vladivostok à la Kolyma, AG 21, n°115, 1912, 93
- [C] Zimmermann Maurice, Données sur le climat de la Mandchourie et de la Chine, AG 21, n°117, 1912, 277-278
- [C] Zimmermann Maurice, Le chemin de fer d'An-tong à Moukden, AG 21, n°117, 1912, 278-279
- [C] Zimmermann Maurice, Les dépendances extérieures de la Chine, L'action russe en Mongolie, AG 22, n°121, 1913, 105-107
- [C] Zimmermann Maurice, Chemins de fer asiatiques, Le chemin de fer de l'Amour, AG 22, n°124, 1913, 377
- [A] Blanc Edouard, La colonisation et la mise en valeur de la Sibérie et de la steppe asiatique, AG 25, n°134, 1916, 124-142
- [A] Blanc Edouard, Le nouveau réseau des chemins de fer de l'Asie russe, AG 25, n°136, 1916, 263-290
- [A] Blanc Edouard, Le futur réseau des voies navigables de l'empire russe, AG 26, n°140, 1917, 106-137
- [N] Haumont Emile, Deux études de Mr V., Semenov-Tian-Chanskii Sur la géographie politique de la Russie, AG 26, n°140, 1917, 144-147
- [C] Demangeon Albert, Les chemins de fer de la Chine, AG 29, n°159, 1920, 234-235
- [C] Sion Jules, L'industrie et les ressources minières de la Chine, AG 29, n°161, 1920, 394-397
- [C] Sion Jules, Le commerce de la Chine, AG 29, n°161, 1920, 397-398

- [C] Maurette Fernand, L'agriculture en Mandchourie, AG 31, n°169, 1922, 88-90
- [C] Maurette Fernand, Le port de Dairen, en Mandchourie, AG 31, n°169, 1922, 90-91
- [A] Gallois Lucien, L'Extrême-Orient et le Pacifique [Les résultats de la conférence de Washington], AG 31, n°171, 1922, 244-259
- [C] Arnaud Georges, La politique de l'Union soviétique en Extrême-Orient, AG 34, n°190, 1925, 376-379
- [N] De Schokalsky J., Travaux hydrographiques en Sibérie de 1915 à 1925, AG 35, n°195, 1926, 280-281
- [N] Ruellan Francis, Le troisième Congrès scientifique Pan-Pacifique [Tokyo, 1926], AG 36, n°201, 1927, 258-259
- [C] Arnaud Georges, L'Institut français des Hautes Étud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de Tientsin, AG 36, n°203, 1927, 475-476
- [C] Arnaud Georges, L'avenir des expéditions scientifiques en Chine, AG 37, n°206, 1928, 186-187
- [C] Sion Jules, En Mandchourie, AG 37, n°207, 1928, 279-280
- [A] Dennery Étienne, La surpopulation japonaise, AG 38, n°212, 1929, 148-168
- [C] Sion Jules, Le pétrole au Japon et la Mandchourie, AG 38, n°215, 1929, 521-522
- [N] Demangeon Albert, Surpopulation et émigration en Extrême-Orient, AG 39, n°220, 1930, 422-423
- [C] G. L., La métallurgie de la Mandchourie méridionale, AG 40, n°224, 1931, 221
- [N] Clozier R., Le commerce de la Chine, AG 41, n°233, 1932, 530-534
- [A] Jorré Georges, La végétation de la Sibérie d'après un travail récent, AG 42, n°236, 1933, 162-174
- [C] Gottmann Jean, Un nouveau centre industriel en Sibérie Orientale, AG 43, n°244, 1934, 445-446
- [C] Gottmann Jean, La colonisation russe en Asie, AG 43, n°244, 1934, 446
- [N] Albitreccia Antoine, Le Manchoukou en 1932-1933, AG 43, n°246, 1934, 652-657
- [A] Dennery Étienne, Problèmes d'Extrême-Orient [Les changements récents dans l'équilibre économique des puissances en Extrême-Orient], AG 46, n°262, 1937, 337-368
- [N] Ruellan Francis, L'agriculture au Manchoukou, AG 47, n°269, 1938, 505-507

2. 참고문헌

- 김지환, 2015, 「만주 간선철도망 형성의 역사적 회고」, 『만주연구』 20
- 윤영미, 2005, 「시베리아 횡단철도」, 『21세기정치학회보』 15(2)
- 조정우, 2014a, 「1930년대 제국일본의 식민지 인구 재배치와 선만척식회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정우, 2014b,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3
- 조정우, 2015, 『제국일본의 식민지 개발 구상과 군사주의: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의 남양척식회사 설립 계획』, 『아태연구』 22(3)
- 조정우, 2016, 『국책회사로 본 국가-기업 관계의 구조변동 : 만주척식공사 재편을 둘러싼 '反기업주의'의 정치사회학』, 『만주연구』 21
- 진시원, 2004,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기원과 역사』, 『국제정치논총』 44(3)
- 최덕규, 2004, 『러시아의 대만주정책과 동청철도 (1894-1904)』, 『만주연구』 1
- Annick Fenet, Pierre-Sylvain Filiozat et Eve Gran-Aymerich, 2007, « La Société asiatique, une société savante au cœur de l'orientalisme français », *Les nouvelles de l'archéologie*, 110, 51-56
- Chavannes, Edouard, 1908,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Coréen de Kao-keou-li, T'oung Pao*, 236-265
- Chavannes Edouard, 1908, *Voyage archéologique dans la Mandchourie et dans la Chine septentrionale, T'oung Pao*, 503-528
- Claval, Paul, 1998, *Histoire de la géographie française de 1870 à nos jours*, Nathan
- Clerc, Pascal, 2014, « Des connaissances pour l'action, La géographie coloniale de Marcel Dubois et Maurice Zimmermann », *Revue germanique internationale*, 20. 135-146
- Cordier, Henri, 1917, "Édouard Chavannes", *T'oung Pao*, vol. 18, no. 1/2, 114 - 147
- Dennery, Etienne, 1938, "A French View of the Situation in the Far East", *International Affair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31-1939)*, vol. 17, no. 4, 528 - 540
- Faucher Daniel, 1956, Georges Jorré (1899-1956), In: *Revue géographique des Pyrénées et du Sud-Ouest*, tome 27, fascicule 2, 195-196
- Giblin, Béatrice, 2005, «Élisée Reclus : un géographe d'exception», *Hérodote* 2005/2 (n°117), 11-28
- Olivier Orain, 1996, *La géographie russe (1845-1917) à l'ombre et à la lumière de l'historiographie soviétique*, *Espace Géographique*, Éditions Belin, XXV (3), 217-232
- Reclus, Elisée, 1881, *Nouvelle Géographie universelle, la terre et les hommes*, t. VI - L'Asie russe. Hachette
- Reclus, Elisée, 1882, *Nouvelle Géographie universelle, la terre et les hommes*, t. VII - L'Asie orientale. Hachette
- VIÉ, Michel, 2011, *La Mandchourie et la «Question d'Extrême-Orient», 1880-1910*, *Cipango. Cahiers d'études japonaises*, 18: 19-78

■ Abstract ■

Changes in the recognition of Manchuria in French geography : ‘Manchuria’ in the papers published in “*Annales de géographie*”

Yim, Dongk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cognition of Manchuria has changed in French geography through the texts about Manchuria, published in the journal of ‘*Anale de Géographie*’ in the beginning of French Geography. The formation of the French geographical school in the late 19th century, called ‘Vidalian’, became a discipline that produced knowledges centered on the region. In the confused situation of colonial expansion and war between nations, Mapping, and regional analysis were took a important roles to the geographical studies. In this paper, however, the methodology of the French geography was not applied to Manchuria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geographical knowledge production of the geography journal was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some prominent scholars who knew the area well. Geographers, on the other hand, were at the stage of accumulating knowledge to collect, classify, and evaluate events from diverse media, and French geographers could not independently perform maps, geological surveys, and vegetation surveys such as those claimed in Europe. In addition, the need to do this in academic field has gradually declin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spatial range of mapping of new emerging national institutions (water resources, forests, and underground resources) and military forces. Knowledge of French geography in ‘Manchuria’ It was also conducted at the analytical level or at the local political and economic level in the 1920s and 30s. We now see, from the 1930s, it included ‘the population’ as the revisited object of geographical discourse of ‘Manchuria’.

Key words : Manchuria, French geography, <i>Annales de géographie</i>
